

## 요한복음 강해

### 하나님의 가지치기 ( 요 15:1~4 )

하용조 목사 / 2004년 08월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랑과 축복,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관계가 생기면 친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며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참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6장 32절을 보면 자신을 ‘참 떡’, ‘생명의 떡’(요 6:35)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시

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차고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할까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게 주렁주렁 열린 과일 때문입니다.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납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원 무성하나 열매 없는 가지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1절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지가 독립을 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어도 앞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도 같은데, 막상 가보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해도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왜 앞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것일까요?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 치신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없어 집니다.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그것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당신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 앞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가는 가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친다는 것입니다. 셋,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하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옴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옴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맞아도 쓴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옴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인내하십시오. 발버둥치면서 안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결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니다.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면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22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17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모두 전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 이에 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성품이 변하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 출처 : 온누리신문